

트럼프 핵잠 위협 속 중·러 해군 연합군사훈련 돌입

동해서 대잠·대공 훈련 전개 사흘 후 제6차 태평양 순찰도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3일(현지시간) 동해에서 연합 해상 훈련을 시작했다고 중국 국방부가 발표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오전 중러 '해상 연합-2025' 연습에 참가하는 중러 해상 합정 편대가 한 군항에서 출항,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부근 해역으로 이동해 여러 과목의 연습을 수행했다며 "이는 연합 연습의 해상 훈련 단계가 전면 전개되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훈련 계획에 따라 중러 해상 합정 편대가 사흘간 훈련을 벌이고, 훈련 내용으로는 잠수함 구조, 합동 대잠 전투, 공중·미사일 방어, 해상 전투와 실제 무기 사용 등이 포함된다 고 설명했다.

러시아 태평양함대도 이날 러시아와 중국 해군이 동해에서 포격·대잠수함 훈련 등 예정된 연합 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양국 해군이 포 사격, 대잠·방공 임무, 해상 공동 수색, 구조 작전을 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현지시간) 러시아 예인선과 군항 지원 인력의 보조 아래 중국 해군 종합구조선 시후(西湖)선과 러시아 인명구조함 벨로우소프함이 먼저 항구를 출발했



2일(현지시간) 러시아 해군 핵추진 탄도 미사일 잠수함 크나즈 포자르스키가 러시아 무르만스크 지역 해군 북부 함대에 영구 배치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TASS=연합뉴스

고, 이어 중국 520D형 미사일 구축함 샤오싱(紹興)함·우루무치(烏魯木齊)함, 러시아의 7천t급 대잠 구축함 트리부즈제독함, 경형 호위함 레즈키함 등이 차례로 항해를 시작했다.

중국 국방부는 양국 해군이 출항 후 합정 혼합 순서에 따라 편대를 구성, 임무 해역으로 진입

하며 통신 선로를 구축하고 해역 수문·기상과 해역·공역 상황 등 정보를 상호 통보했다고 전했다.

또 이에 앞서 중러 양국 군이 혼합 편성된 연합지휘부가 훈련 계획에 따라 도상연습을 진행했고, 병력 조직 형태 등에 관해 소통한 후 훈련 과목을 수정했다고 했다.

앞서 중국군과 러시아군은 이날 1-5일 동해 부근에서 합동 정기 훈련인 '해상 연합-2025' 연습을 하고, 이후 태평양으로 병력을 옮겨 제6차 해상 연합 순찰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러의 공개적인 태평양 연합 순찰은 2021년 10월과 2022년 9월, 2023년 7월, 지난해 7월과 9-10

월에 이어 이번이 여섯번째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한 해 동안 두 차례 연합 순찰을 했다.

지난해 9-10월 훈련을 보면 양국은 동해와 오후 크크해에서 전함 10척과 30대 이상 항공기를 투입했고, 이후 태평양 서북부 등에서 함께 기동하거나 대잠수함 방어 훈련을 벌였다. 비슷한 기간 양국 해경 역시 태평양 연합 훈련 순찰을 했다.

이후 양국은 지난해 11월 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포함한 동해·태평양 상공에서 연합 공군 순찰을 하기도 했다. 양국 폭격기·전투기 등이 동해와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러 양국은 이런 훈련이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해군 훈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러시아의 핵 위협에 맞서 핵잠수함 2척을 적절한 지역에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옛 소련 핵 공격 시스템인 '데드 핸드'(Dead Hand)를 거론하며 핵 공격 가능성을 암시한 것에 대응하겠다고 핵잠수함 배치를 명령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정기적으로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이번 해군 훈련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나오기 전에 이미 예정돼 있었다.

/모스크바·베이징=연합뉴스

예멘 연안 이주민 선박 전복...68명 사망·74명 실종

결프 아랍국가 향하다 침몰

아프리카 예멘 해안 인근에서 아프리카 이주민들을 태운 선박이 전복돼 68명이 숨지고 74명이 실종됐다고 AP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분쟁과 빈곤을 피해 부유한 결프 아랍 국가로 향하던 아프리카 이주민들이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로 수많은 이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인

154명을 태운 사고 선박은 3일 오전 예멘 남부 아비얀주 인근 아덴만에서 침몰했다.

인근 해안 등지에서 시신 89구가 발견됐다. 생존자는 12명뿐이며, 나머지는 실종 상태로 추정된다.

아비얀주 보안 당국은 많은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에 대해 대규모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예멘은 10년 넘게 내전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결프 지역으로

가는 주요 경로다. IOM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예멘에 도착한 이주민은 6만명 이상이다.

이주민들은 밀수업자들이 운영하는 과밀 상태의 위험한 보트를 타고 홍해나 아덴만을 건너다.

최근 몇 달간 예멘 인근 해역에서는 이주민 수백명이 선박 전복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지난 3월에는 예멘과 지부티 인근에서 보트 4척이 전복돼 2명이 숨지고 186명이 실종됐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발발 후 러 병사들 HIV 감염 2천% 폭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군인들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률이 2천% 폭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지난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카네기재단 러시아우라시아센터가 펴내는 온라인 간행물 '카네기 폴리тика' 보고서는 러시아 국방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해인 2022년 1분기부터 같은 해 가을까지 러시아 군대에서 확인된

HIV 신규 감염 사례는 전쟁 전보다 5배 늘었다. 같은 해 말에는 신규 감염 사례가 13배로 늘었고 2024년 초에는 2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카네기 폴리тика 보고서는 전했다. 러시아 군대에서 HIV 감염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요인으로는 수혈, 아전 병원에서의 오염된 주사기 사용, 성적 접촉, 약물 주입을 위한 주사기 공유 등이 꼽혔다. /연합뉴스

영국 첫 여성·공개 동성애자 대주교 탄생

웨일스 성공회(웨일스 교회)에서 영국 최초의 여성·공개 동성애자 대주교가 탄생했다. 새 대주교는 "하느님께서 성직자로 불러주셨다는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교회 내 계급 투쟁을 거치면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체리 반(66) 몬모스 주교가 교구 선거인단 전체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웨일스교회 대주교로 선출됐다.

영국 레스터 출신인 반 대주교는 1994년 영국 잉글랜드 성공회에서 최초의 여성 사제 중 1명으로 서품받으면서 본격적인 여성 성직자의 길을 걸었다.

장기간 잉글랜드 성공회에서 사목하던 반 대주교는 2020년 웨일스 교회의 몬머스 주교로 선임된 직후 오랜 기간 숨겨왔던 동성 동반자 웨디 다이아몬드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교단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가디언에 따르면 잉글랜드 성공회는 동성애 자체는 허용하지만, 동성애자 성직자의 경우 독신을 지켜야 한다.

반면 웨일스 성공회는 성직자의 동성애와 동성 동반자 관계를 모두 허용한다. 웨일스에서 커밍아웃이 가능했던 배경이다.

반 대주교는 동반자와 약 30년간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한다. /연합뉴스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3차 방류 완료

일본 도쿄전력이 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13차 방류를 완료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2025년도(2025년 4월~2025년 3월)에 실시하기로 한 7차례 방류 중 2회차인 이번 방류를 통해 7천800t의 오염수를 방출했다.

지난달 14일 개시된 13차 방류는 애초 이달 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캄자카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8.8 강진으로 방류 작업이 일시 중단된 영향으로 작업 일정이 연장됐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는 2023년 8월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약 10만1천900t이 방류됐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